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놀러와요 Zomia 에

알려지지않은아나키즘적나라

마테이스베일

마테이스베일
놀러와요 Zomia 에
알려지지않은아나키즘적나라
2021 년 8 월 27 일

Medium: Welcome to Zomia, 2025 년 11 월 21 에접속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8 월 27 일

조미아얘기를하자. 조미아는면적으로세상에서 8 번째로큰나라로, 면적이 25 억제곱킬로미터에달한다. 1 억 3 천만명의생기넘치고다양한집단의고향으로, 인구규모로일본과멕시코와견줄만하다. 조미아의자연경관은또한지구상에서아름답기로손꼽히며, 이곳에는야생동물로넘쳐나는뾰뾰한우림부터구름에걸친설산까지모두찾을수있다.

하지만놀라운면적과인구에도불구하고, 조미아가표기된현대지도는찾기어렵다. 아니, 옛지도를뒤지더라도그렇다. 조미아가어느지도에도표기되지않은이유는당신에게알려지고싶지않기때문이며, 당신에게‘조미아’라는이름마저생소한것은같은이유에서다. 실제로, 조미아대중은뾰속깊은곳까지아나키스트로, 어느국가의시민도되기를거부하고자신의무국적상태를수호해왔다. 조미아는따라서‘비-국가’공간으로모든면에서우리가생각하는국가의기준에반대이다. 자세히알아보자.

조미아의이야기는 1997 년인류학자장미쇼 Jean Michaud 가동남아시아지역의어마어마한다양성에접근할새로운관점을제시하면서시작한다. 이전까지학자들은고유한문화와집단으로넘쳐나는이지역을분석하는데적합한도구를찾지못해먹었다. 수백, 아니, 수천개의서로다른언어, 수십가지종교, 끝없이다양한사회구조와전통의보급자리인동남아시아는인류학자의달콤한환상이다. 지리학적다양성의면에서동남아시아와견줄수있는곳은오직파푸아뉴기니아뿐이다.

그럼에도미쇼는압도적인다양성의동남아를‘고지대’의인구와저지대평지의인구로구분할가능성을눈치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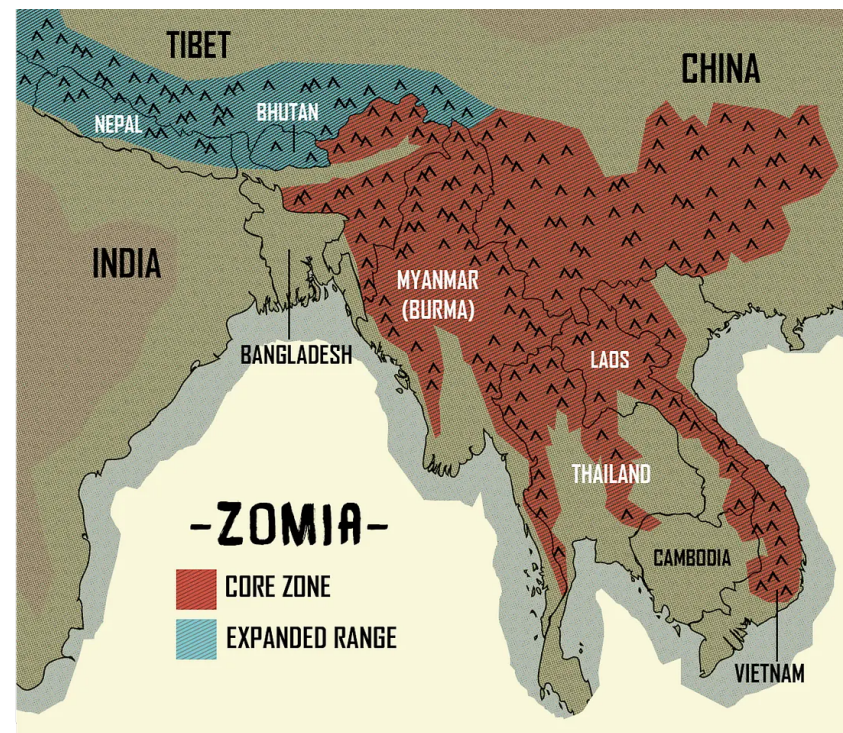
아시아대륙동남부, 해발 300 미터이상고도에사는여러사회를관찰한결과, 미쇼는거대한지리학적영역에걸쳐공통된특징을발견한다. 영역은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베트남을포함한동남아시아본토를넘어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와심지어대만까지포함한다. 이곳은공통으로경제적으로소외되고국가에존속되지않았으며방대한생태계를보유한다. 이지리학적연구도구를미쇼는‘동남아시아산괴’라명명한다.

지역과복합적인문화를연구할새로운기법을제공해가치를입증해내지만, 동남아시아산괴라는이름자체는어딘가매력이부족하다. 때문에빌렘반센델 Willem van Schendel 은 2002 년‘조미 Zomi’에서따온조미아를제안한다. 조미는여러티베트-버마언어에서‘고원인’을지칭하고동남아시아산괴에포함된여러국가에서도사용하는흔한단어다. ‘조미아’는따라서 10 개다른국가에걸친지역과특징적인고지대민족의다양성을모두담아낸다.

라. 인류의발전을상징하는문명은이롭고이문명에동참하지않은야만인은해롭다. 문명의테두리밖에있는대중은지난천년동안멸시의대상이었다.

이‘타인’의존재덕분에‘문명’을받아들인대중은대부분국가가가하는부담을수용했다. 하지만콧시 John M. Coetzee 의『야만인을기다리며 Waiting for the Barbarians』에서처럼, 이런야만인의모습은허상에지나지않는다. 나아가야만인은오로지폭력으로위협을가하지않고사상의위협을상징했다. 우리는우리의인간성을강조하려고야만인의비인간성을부각했다. 우리가법률과관료에게복종하는이집단에왜속하기로했는지설명하는가상없이, 문명이라는우리의현실이존속할길따위없었다.

따라서조미아는우리가어떻게질서대카오스, 문명대야만이사이미신과대립덕에우리의세계에수궁했는지드러낸다. 비록조미아라는‘나라’는영영소멸했다라도, 타인의인간성을바라보라는교훈은영원하리라.



조미아지도. 청색영역은반센델이확장하자고제시한지역을표시한다.

비록동남아시아산괴와조미아는일부학자의관심을끌지만, 조미아와조미아의공동체를둘러싼논의는 2009 년이돼서야주목받는다. 저서 『통치거부하기의미학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에서저명한인류학자이자정치학자제임스스콧 James C. Scott 가말하길, 조미아인연구는세상곳곳에서찾을수있는아나지키즘적사회를우리의오만한국가중심적사고로접근하는오류를범한사례중하나이다. 덕분에조미아인은문명화하지못한야만인으로오해받는민족이되었다.

스콧이말하길, 조미아는오직지리학적다양성으로알려지는데그치지않고, 그들을굴복시키려는국가권력의시도로부터대항하는조미아공동체의능동적인역사적노력의산물로명성을떨친다.

조미아는국가에아직완전히편입되지않은세상에몇남지않은곳중가장큰지역이다. 하지만얼마전까지만해도, 조미아처럼자기주도권을행사하는공동체가인류의태반이었다.

역사에걸쳐, 지배받지않은민족을‘야만인’이라치부하는경향은, 특히중국과로마제국이그랬듯, 사실자국민에게국가의유일무이와영토내에강요하는사회계약을과시하려는노력이었다. 세금을바치지않는자유로운대중의존재자체가국민에대한국가의지배를직접적으로위협했다. 문명의긴대를세우고야만성을경고함으로써, 국가는자기공적을선전하고같은노선상에있지않은이들을멸시했다.

“내말은, 중국을비롯한여러문명국이논하는‘야만’과‘날것’과‘원시적’의담론을비판하여해체해야만한다. 이단어를자세히살펴보면모두실질적으로지배받지않고아직편입되지않은상태를뜻한다. [...] 인종과‘부족’은징세와통치권이끝나는바로그경계에서시작한다. 로마제국과중국의경우에도모두그랬다.

다시조미아의경우로돌아오자. 여러산악민족을국가형성과업에편입하는데실패하자, 저지대국가는이들을근대화와진보의산물을거부하는선조로편파하기로전략을바꿨다. 다시스콧을인용하자면,

“저지대왕조에따르면산악민족은‘논경작과불교와문명전반을발명하기이전우리삶의방식’을보전하는*살아숨쉬는우리과거’이다.”

하지만스콧은이관점을틀렸다고강조한다.

나는되려산악민족을피난민과도망자와부랑자의공동체로이해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들은 2 천년에걸쳐노예제와징병제와징세와부역과전쟁병과전쟁등저지대의국가건설과업의손아귀를피하며지내왔다.

상상력을자극하는주장이다. 스콧의논리에따르면, 조미아에거주하는대중은지난천년동안국가의통치를능동적으로피하며지냈고, 저지대왕국에복종하

기보다자유를선택했다. 조미아는‘만들어진’곳이다. 거저존재하지도, ‘구시대 의잔여물’도아니다.

조미아인은자신을에워싼국가와문명에관여하지않음으로써자유롭게지내길선택했다. 국가형성과과정에서소극적으로뒤쳐진것도, 능력부족으로진보하는데실패한것도아니다. 조미아는국가와‘문명’덕에접할수도있었던물질또는문화이득보다는자유를선호한이들의손으로세워졌다. 세금을납부하거나새종교로교화하거나고유의문화를포기하기싫던대중을위한아나키즘적보금자리였다. 이들은단지국가를피하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배척했다.

하지만‘정치적’이라는단어가아나키즘적상태로특정된지리적영역을일컫지않는선에서, 조미아는정치적인목적으로결성되지않았다.

조미아는 [...] 정치적으로단결된지역이아니며, 애초에정치적으로균일할일없는곳이다. 조미아는대신, 다채로운산악농업과산개됐지만원활하게소통하는공동체와전반적으로평등한특성을공유한다. 공교롭게도산악여성은평지여성보다나은사회위치를차지한다.

자유를향한여정에서조미아인이성공한주된이유는국가건설과형성을가로막은자연장애물에있다. 산이많고험한지형과뺏뺏한밀림과인구밀도가낮은땅은국가로하여금조미아인을굴복은커녕접근조차하기어렵게만들었다.

스콧이말하길, 이모두 20 세기, 특히제 2 차세계대전이후바뀌었다.

1945 년부터, 또는일부경우에그전부터, 국가권력은거리의어려움을무효로하는기술을최전선에배치하기시작했다. 철도와전천후도로, 전보와전화, 비행기와헬리콥터, 그리고이제는정보화기술까지 [...] 모두자치민족과국가사이권력의전략균형을바꿔지형장애물의효력을감소시켰다.

비록일부조미아지역은아직국가권력의손아귀밖에머무르거나적극적으로대항하지만, 많은조미아대중은지난수십년간유의미하게바뀐삶을살고있다. 현대에는‘근대화’와‘개발’로불리는‘문명화’와‘계몽’명분아래, 국가는끝내변방의대중을세금을부과할수있는국민으로만들어냈다.

무정부공간으로서조미아는따라서실질적으로소멸했다. 하지만아나키즘적요새로서지역의과거 역사를발견해, 우리는문명과국가의지배적인상에강력히대항할수있는대안담론을찾을수있다.

우리는흔히문헌기록과웅장한유적지를통해우리 역사를공부한다. 문명화의미신을접한우리는우리가거대하고이로운무언가의일부라고믿게됐다. 국가가공적인삶과사적인삶모두에침범하게허용함으로써우리는‘진보’하고‘진화’하리